

새벽 기도회 - 본당에서 갈릴리홀로 변경

What is that in your Hand?

(Exodus 4:2)

And the LORD said to him, "What is that in your hand?" And he said, "A staff"

One day as Moses was pasturing the flock of Jethro his father-in-law, he saw a bush actually burning on the mountain of Horeb, but not consumed. When he went to investigate this strange appearance, God called to him from the midst of the bush and said, "Moses, Moses!" Moses answered, "Here I am." What a wonderful moment of communication. In the midst of his isolated, lonely, and sad position God called Moses and Moses responded. God told Moses, "Do not come near here; remove your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Ex. 3:5). God taught Moses the need for courtesy and respect. He took care of him by commanding him not to come too close, for he would surely die. God also explained who He was,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Ex. 3:6). When Moses heard this he covered his face. He was afraid to look at God because of His awesome glory. What an exciting blessing to have direct conversation with God.

Moses had waited over eighty years for God's revelation of Himself. His family, friends, and even fellow countrymen had rejected him because of his need to escape from Pharaoh for his life. He was truly lonely in the desert but God did not ignore him. Indeed, God met him at the mountain of Horeb. He explained to him all the beautiful things He had planned for His people. God wanted to give Moses a big job—the deliverance of His people from Egypt! But as Moses stood before the Lord, he looked at himself and realized he had nothing. When we stand at the foot of the cross, sincerely and faithfully, we also immediately find that we are mere sinners. There's no room to be proud, just humble. Like Paul, we can relate to being the least.

When one experiences the glory and power of Almighty God the realization of our sinful nature is illuminated and the reality that God is everything and we are nothing without Him is manifested.

As Moses encountered this situation he said to God,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and that I should bring the sons of Israel out of Egypt" (Ex. 3:11)? Before meeting God, Moses had pride. He was a prince, well educated and physic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strong. He thought he could save his people but ended up killing an Egyptian and having to flee for his life. Here, before the Lord, he communicates to God that he is nothing and totally inept for the job. What a wonderful communication!

In their interaction, God asked Moses a question, "What is that in your hand" (Ex. 4:2)? Moses answered, "A staff." All he had was a shepherd's crook. And that's all God needed. With Moses' staff God would show His power and authority. Pharaoh, the king of Egypt, would kneel down to Moses. The Red Sea would part in two and water would flow from a rock. Do you believe that a rod could perform such miracles? On his own, Moses could not save Israel but with God's provisions he was enabled.

God asks you what you have in your hand, and whatever it may be, He will use it. My dear friend, I believe that you have something better than a rod in your hand. If you humbly give what you have to the Lord, He will use it. David had nothing when he fought the Philistine. He had no army training. He had never used a sword. He had never been in battle before. All he had was a stick (see 1 Sam. 17:40). But God used that stick to destroy the head of Israel's enemy. Look at Gideon. With trumpets, pitchers, and torches he conquered Midian. Let us

remember that "God has chosen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and God has chosen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things which are strong" (1 Cor. 1:27). Amen!

Elijah visited a widow who had only very small portions of flour and oil, and yet she fed Elijah for three years. During the terrible drought, she served a servant of the Lord. What a wonderful sacrifice. What a wonderful heart that prays, "Lord, use me with whatever I have." God wants to give you His grace and love. He wants to use you with whatever you have. Don't try to make things work yourself, just humbly let go of what you have to God and He will provide. Naaman, the Gentile warrior captain, was plagued with leprosy. His wife's handmaiden, a little Jewish girl who had been taken captive, spoke of a prophet in her home country who could cure Naaman. Naaman listened to the little girl and asked his superior, the king of Aram, if he could go to Samaria to meet the prophet the girl had spoken about. The king allowed his visit and Naaman got to meet Elisha.

My dear friend, do you believe in God's ways? Anyone of you, if you believe, will triumph. Don't tell me you don't have anything! God will use whatever is in your hand to bring victory to His name. The Holy Spirit descended from heaven to give all believers the power to be God's witnesses,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see Acts 1:8). That applies to you if you're a believer. It's not my choice, it's God's Word. Just totally obey. When Jesus went to the Jerusalem temple he saw rich people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treasury, and he saw one poor widow deposit two small copper coins. He said, "Truly I say to you,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of them; for they all out of their surplus put into the offering;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that she had to live on" (Lk. 21:3&4). Amen! That's God's way of accounting. What do you have? The poor widow gave everything. God doesn't count how much you offer. He counts how much you have left in your pocket. He counts what comes from your heart.

A young boy gave all his lunch to Jesus. Jesus used the lad's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h to provide a nice dinner for 5,000 people (Jn. 6:9). Mary of Bethany poured an alabaster vial of very costly perfume over Jesus' head (Mk. 14:3). She gave all that she had. Dorcas, a woman abounding with deeds of kindness and charity died. When Peter arrived, the widows showed him all the things she had made (Acts 9:36&39). All her life she gave to others. In turn, God used Peter to bring her back to life. You can bless others through God's blessing upon you. Jesus said to the Smyrna church, "Do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so that you will be tested, and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ten days.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Rv. 2:10).

My dear friend, whatever you have in your hand you can use for God's glory. You can sing, pray for the pastors and church, be witnesses at your job, factory, business, or office. You can share heavenly peace with those who surround you. You can offer tithes for the church and poor. You can do anything. God wants to use what you have for His glory. Jesus gave you everything He had. He did not have anything left after giving. Look at the cross. Jesus is asking you what you have in your hand. Do you want to give Him something? Let's humbly open our ears and listen for His wonderful voice. Amen. ▮



김성광 목사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나 (출 4: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모세가 하루는 “호렙” 산 위에서 실제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이 신비로운 일을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교제의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고독하며 슬픔에 가득 찬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스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의 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출 3:5).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중함과 경외함의 자세가 필요함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 3:6). 모세는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갖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축복이었습니까?

모세의 자아에 대한 인식과 자기 부정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팔십이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야곱의 바로에게서 도망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동포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너무 나고 고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를 “호렙” 산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을 위해 계획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로부터 구출하는 큰 임무를 맡기기를 원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 선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실하게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 역시 심각한 죄의짐을 즉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고만할 죄인들입니다. 그저 겸손해질 따름입니다.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존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위대한 신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요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 말

했습니다.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이까?” (출 3:11).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는 매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유체적으로 강인했으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왕자였습니다. 모세는 그가 자신의 백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애굽 사람을 죽였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주님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니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화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신함

오늘은 대화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출 4:2).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가진 전부는 양치는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시려 했습니다. 야곱의 바로 왕은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로부터 물이 솟아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막대기 하나가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세 스스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함께 한다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손에 지팡이가 더 좋은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가진 것을 주님께 겸손히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갑을 써 본 경험도 없었으며, 전쟁터에 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 뿐이었습니다(삼상 17:40).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적장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보시십시오. 나 판과 물 항아리와 햇불만 가지고 미디안을 정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배려하 하시나니”(고전 1:27).

보잘 것 없는 것을 사용하는 하나님

렐리아는 오직 한 종류의 떨기나무와 거의 바닥난 기름을 가지고 있던 한 과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삼 년 동안 렐리아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심각한 가뭄 속에서도 그녀는 주의 종을 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입니까? “주여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사용하여 주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 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기거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고 노력하지 말고, 그저 가진 것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분께서 섬리하실 것입니다. 이방인 장군인 바나만은 문둥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는 아바네의 여종이었던 유대인 포로 소리로부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소녀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청하기를 사마리아로 가서 그 소녀가 말한 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나아만의 방문을 허락했고 그래서 렐리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고 말할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승리를 가져오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종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행 1:8 참조). 여러분이 사귀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자들이 많은 예물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두 개의 작은 동전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존재에서 자기 있는 대로 생장한 것만을 넣었으니라”(눅 21:3-4). 아멘. 이보다 하나님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분이 얼마나 바치는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세어 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한 어린 소년이 그가 가진 모든 점심을 예수께 바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소년의 딱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를 사용하셔서 오천 명에게 좋은 저녁식사를 배부 해주셨습니다(막 6:9). 베다니의 마리아는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바르 주었습니다(막 14:3).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했던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곳에 도착했을 때, 과부들은 그녀가 했던 모든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행 9:36-39). 도르가는 남들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도르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교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육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나 너희가 심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네 손에 있는 것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양할 수도 있고,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으며, 또 인터넷에, 공방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복음의 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평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십일조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기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남은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께서 주님께 무엇인가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히 여러분의 귀를 열고 그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아멘. ■

동역의 기쁨

이 종 석 (성로, 몽골 단기신교당)

이번 몽골단기신교사역에는 금년에 본국으로 귀국한 우리 교회 외신부 출신 분도, 스터 부부와 동역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헌신된 현지 사역자와 동역이 사역활동 중에 큰 기쁨이었다.

LMTC훈련과정으로 참가한 단기들은 가는 곳마다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였다. 역시 전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감과 주님의 감 제자의식을 갖고 할 때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번 몽골단기신교사역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밑거름으로는 출발전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였고 몽골언어를 3개월에 걸쳐서 배운 덕분에 생각되었다. 따라서 사역지로 떠나기 전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사역지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몽골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 순종의 마음가짐 등이 참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의료팀은 내·치과계를 통틀어 569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진료를 받으며 비교적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의료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특히 적잖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몽골인들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맘을 뻗어 돌리시면서 진료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대학부 팀들은 의료팀 사역을 열심히 도우며 어린이 사역과 스포츠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내선있게 진행하였다. 특별히 인형극을 보여주어 함께 농구경기를 함으로 현지 아이들과의 접촉점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심방팀은 수도 울란바토르와 만달가쉬(북고비사막) 지역, 다락, 그리고 예르드바트를 순회하면서 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25가정을 직접 방문으로, 4가정은 전화심방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6가정은 스스로 선교단을 찾아와서 교회하였다.

금번 몽골단기신교사역에서는 전도팀과 의료팀이 잘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 팀 구성원은 조금 많은 편이었으나 장·청·노년층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오히려 좋은 화목을 이루었다.

외신부 가정을 심방하면서 여러 명이 주일성수와 교회출석,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감사했다. 몽골헌지 교회에서는 성경·찬송이 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로서 우리들이 가지고 간 신구약 성경과 찬송을 새로 민기로 작성한 사람들에게 기증하였다. 또한 그곳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다음 교회에도 성경과 찬송을 많이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니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다.

몽골은 희망적인 선교지로 생각되었고 특히 충현교회 외신부를 다닌간 현지인들과 협력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선교지라고 생각하였다.



“예수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최 현 배 (대학부, 단기신교당)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생백비 배가진 던진 이 한 마디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무엇인지 각각할 기회를 준다.

8월 1일 저녁, 나는 집이 멀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몽골로 가기 위해 선교위원회의실에 남았다. 명하니 혼자 있다가 너무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어 성경을 펼쳤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던 중 찬송가 373장이 떠올랐다. “~예수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순간 눈물이 울컥하고 쏟아졌다. “그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야” 이 결심을 하고 다음날 새벽 몽골로 떠났다.

우리 선교팀이 처음 도착한 곳은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비오 콤포나라라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दो 주 예배를 드리고 의료사역을 시작했다.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몽골인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줄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들을 보며 마음 속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질서 개념이 없으니가 나라가 이 꼴이지’

나는 그 다음 날도 의료사역에서 정수를 받고 줄세우는 일을 맡았다. ‘이 사람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는거지?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 같기도 했는데, 내 말씀이 그렇게 나쁘니까? 어느덧 나의 마음에는 몽골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복사에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라고 불평했다. 목사님께서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겠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줄도 안서고 먼저 진료를 받으려고 하겠니?”

‘아!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뭐하고 있었던거지? 순간, 오기 전날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났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라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악에 찌들어 있고 제멋대로인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는데 나는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하고 그 날부터 모든 사역이 끝난 후 대학부 지체와 함께 농구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곳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져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몽골 아이들이 농구를 정말 좋아했다. 그들이 먼저 공을 든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현지 아이들과 귀국 전일까지 매일 저녁 농구를 했다. 우리는 농구를 하면서 영어와 농구에 능통한 ‘오펜’이라는 친구를 사귀었고, 현지 아이들과 함께 농구를 한 뒤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내었더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다. 그렇지만 이렇게 못난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몽골인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같은 못난 사람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의 사랑에 감사할 뿐이다.

방글라데시를 품에 안고



사신 왼쪽부터 정현주 자매, 이영하 자매, 김서영 자매

지난 8월 6일 11시 50분경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은 다카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절차를 마치고 공항 정문을 나선 기차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물러있는 젊은 여자가 가운데, 아국 땅에 첫발을 내딛고 생애에는 대원들과 방글라데시 입원들을 능숙하게 통역하여 차량으로 인솔하여 대명의 선교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8월 13일 오전, 연일 이어지는 단기선교사역의 분주함 가운데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영하, 김서영, 정현주 단기 평신도 선교사(아내 선교사)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기자 : 방글라데시를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말씀으로 여기고, 이곳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사역을 하십니까?

이영하 : 저희 세 명의 선교사들은 음악과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이러한 특기를 살려 그들과 미술 레슨을 통해 현지인 선교의 접촉점을 삼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양육이 가능한 사임을 선별하여 서성경부부를 하면서, 방글라데시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최종 사역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담당하기까지 하신 전도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면서 양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지인을 모아 방글라데시에 교회로 세우기 위한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피전도자에 관한 양육은 현지 교회를 소개함으로써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이러한 목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서영 : 3월 20일 방글라데시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를 언어훈련의 기간으로 삼아 병간이 하원에 다니며 현지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훈련 언어가 가능했던 6월 말경부터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원에서 배우는 언어와 토에 필요한 언어가 다르고, 외국인인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역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대충통과해서 일대일 전도를 시작했던 것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인이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니가하여 현지인 교회와의 연계를 통해 전도를 하고 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복음 사역을 위함이라는 이유로 교회측에서 어려움을 표해왔습니다.

기자 : 그러면 앞으로의 사역은 어떻게 계획하시니까?

정현주 : 단기 선교팀과 협력하기 위해 현재 저희가 진행하던 사역은 잠시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8월 말경에 비자 기간 연장을 위해 입점국가인 네덜란드 비자여행을 시작할 때 Mission Home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다각화 계획합니다. 피아노와 미술 레슨을 통해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5명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노방전도와 일대일 전도는 계속 할 것이고, 아울러 외신부 귀국자 형제들과 외신부 지체들의 현지 가정을 정기적으로 심방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Mission Home을 이곳에서 개발하여 찾아오는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인들의 특성상, 꾸준한 교육을 통해 먼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주고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 Mission Home이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건물 주인의 허락도 필요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길 기대합니다. 더욱, 멀리하는 오는 1월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크리스찬 마들들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가능하고 토에 가까운 1월 이전에도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방글라데시에서 신변의 위험과 많은 문화·환경적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방글라데시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방글라데시의 영혼을 위해 부르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서 아바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으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세가를 향해 나간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소원한다.

(박철홍 전도사)

말씀으로 세워진 소망

추 수 현 (청년부, 74등기)

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으로 제 맛대로입니다.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하기에도 죄스러운 공상과 억측에 빠지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노니대로 한참을 내버려 두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해곡과 비단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가 있는 저의 마음을 다시금 말씀 앞에 올려 봅니다. 제대로 서 있으라고 의지를 도구 삼아 일으켜 세우기를 여러번 반복하지만 저의 마음은 아직도 절망과 좌절이 더 크기 때문에 젖은 솜처럼 뭉개지기 일쑤입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절망과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 매일 쓰러지고 저의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에는 이러한 저를 다시 일으키고 소생시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찌처럼 말씀을 붙들고 죄인의 심정으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고 나아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가슴이 아파오며 눈물이 흐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 무서워 말하지 못했던 깊은 마음의 골짜기가 말씀의 빛 아래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온갖 거짓과 두려움, 해곡과 편견, 선입견, 좌절과 절망, 늘 이런 것들로 싸우고 있는 저의 약한 모습이 부끄럽다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또한 한 쪽 구석에 깊은 상처로 쌓아 두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주님의 말씀 아래서 환히 비추여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찌꺼기까지 썩삭 훑어내어 주님께 가 저기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상처를 거두어 가시고 새 생명으로 소생시켜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의 해곡과 못남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소생시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삼하4:1-12 사울의 아들과 아브넬의 죽음)

최 인 영 (청년1부, 73등기)

본문에서는 이스보셋이 그의 군장들의 손에 살해되는 장면과 그에 따른 다윗의 처리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이스보셋의 군장인 레갑과 바나나는 낮잠을 자던 이스보셋을 살해

하고 그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걸어 다윗에게 간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주며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라고 고한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며 그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지낸다.

다윗은 레갑과 바나나의 얇은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자신을 높이고 적당히 하나님의 뜻으로 얼버무려 다윗에게 그것을 기뻐하라고 권하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를 자신이 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오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진짜로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나아가기 위한 나의 방법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나의 감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자라나지 않을까? 그런 나의 영감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우린 세상의 다른 사람과 바라보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 얼마전 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현재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을 보았다. 현재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함으로 인해 서 전에 보지 못했던 안도감과 당당함이 그에게 있을 것을 느꼈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친구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그의 눈으로 알지 못 할 미래에 대해 벌써 단정 지으며 투명한 종류의 삶을 아름답게 색칠해 놓은 것은 아닐까? 그 친구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 그가 바랬던 대로 되어진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과 그 어느 것 사이에서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다윗처럼 그분의 뜻을 분명히 위해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본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더욱 선명해지길 원한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길 원한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고 나만의 영혼을 내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어떤 책이나 구절이 떠오른다. '묵상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시 막연한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래의 기록 가운데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시하지 못한 부분은 읽고 묵상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마음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탄생(눅 2:1-7)
- ☐ 목자의 방명(눅 2:8-20)
- ☐ 할례 위에 성전 방문(막 2:21-40)
- ☐ 소년시절의 성전 방문(막 2:41-52)
- ☐ 오동당 세례(눅 3:1-13)
- ☐ 시몬방음(눅 4:1-21)
- ☐ @성전 정화(요 2:14-22)
- ☐ @나고대도 중보(요 3:1-21)
- ☐ @사마리아 여인(요 4:5-42)
- ☐ @야의 신아의 아들을 고침(요 4:46-54)
- ☐ 갈릴리 전도 시작(요 4:42-44)
- ☐ 4명의 여부를 부르심(요 5:1-11)
- ☐ 베드로의 정교를 고치심(요 4:38-41)
- ☐ 세리 마테를 부르심(요 5:27-32)
- ☐ 12제자를 선택하심(막 6:12-15)
- ☐ 산상수훈(막 6:20-49)
- ☐ 죄인인 여인의 기름부음(눅 7:36-50)
- ☐ 다시 갈릴리 전도(막 8:1-3)
- ☐ 천국키와(눅 8:4-18)
- ☐ 천복을 침례케 함(막 8:22-25)
- ☐ 회당장 아이로디의 딸을 고침(막 8:40-56)
- ☐ 12제자를 보내심(눅 9:1-6)
- ☐ 세례 요한의 죽음(눅 9:7-9)
- ☐ 오전 영을 먹이심(요 10:1-17)
- ☐ @물리론 결오심(요 6:16-21)
- ☐ @시몬과 두로의 배척반대(마 15:21-28)
- ☐ @사탄 영을 먹이심(마 15:32-39)
- ☐ 베드로의 신앙고백(눅 9:18-21)
- ☐ 죽음을 알리심(요 9:22-25)

주간총회헌화 2001.09.016

No.03

{은혜소녀, 주의 길을 따라가 가다}

글,그림:장민



좋은 소망과 아미션에 힘쓰시길 권합니다.

- ☐ 변명도심(눅 9:28-36)
- ☐ @성전세례 내심(마 17:24-27)
- ☐ @성직침례 보내심(요 7:11-52)
- ☐ @논란 지를 고치심(요 9:1-41)
- ☐ @마리아와 막달라를 방문(요 10:38-42)
- ☐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요 11:1-44)
- ☐ 예루살렘 마지막 전도(눅 17:11)
- ☐ 소자를 축복하심(눅 18:15-17)
- ☐ 부자 청년과 대화(눅 18:18-30)
- ☐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심(눅 18:31-43)
- ☐ 바디메을 고치심(눅 18:35-43)
- ☐ 식개을 부르심(눅 19:1-10)
- ☐ 마지막 주간(눅 19:29-23:56)
- 성전 입상
- @중려나루 저주
- @성전 강화
- 침문의 권위
- 성전에서 가르치심
- @나를 부르심
- 음모
- 마지막 만찬
- @제자를 위로하심
- 갯새네 기도
- 제후와 수녀
- 십자가와 죽음
- 장사되심
- @부활 후(눅 24:1-24:53)
- 빈 무덤
-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 염마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 열 제자에게 나타나심
- @열한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심
- @베드로에게 나타나심, 그의 제자 중 어떤 자와 말하심
- @승천(막 16:19-20)

(주간총회헌화)

구역 일지

사랑과 관용 그리고 충성

교구 개봉2·3구역



언젠가 기독교 상담교육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사회자가 나에게 던진 질문이 생 각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그때 나는 '사랑, 관용, 충 성' 세 단어를 떠올리며 나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내 가 속해 있는 구역의 구역장으로서 구역에 섬기는 일장에서 나는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역장으로서 부름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내재하고 소극적인 내 모습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학습을 받고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한 구 역식구가 있습니다. 전화심방을 하면서 그 남편의 큰 소리지르는 한 마디에 놀라 그후 다시는 수화기를 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영향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의 가르침인 사랑과 관용은 멀거니합니다. 구역예배 시작하기 전 에 언제나 미리 오셔서 '구역장님 어서오세요'라며 반겨주시는 연로하신 권사님들. '다움에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맞이해야' 하면서도 언제나 회의를 놓치고마는 준비성 없는 나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말 열심히 참석하시는 구역식구들 에게 충성하는 내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요?

먼저 우리는 찬송을 서너 곡 부르면서 마음문을 엽니다. 구역공과 공부가 시작되면 구역원들이 어떤 어떤 하며 아주 진지하게 듣는 바람에 말씀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구역예배 공과가 주일날 대예배와 연결되므로 더욱 정성을 기울이시는 구 역식구들 모습을 보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들은 후 구역 식구들 은 지난 한 주간 일어났던 이야기를 꽃피웁니다.

전례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예수 님 믿어야 천국이 갑니다'라며 힘있게 전도하시는 권사님! 무릎에 흙이 있어 물리치 로 받으시다가 구역예배 시간이라며 달려 나오시는 권사님! 정말로 화를 주십니다. 미용 실을 실비로 경영하시며 '예수님이 진짜입니다'라고 전도하시는 권사님! 이 권사님 을 통해 우리 구역에서는 새신자 한 분이 등록하여 5개월째 출석하고 계십니다. 53세의 아들이 8년 전 백성으로 교광사고를 당해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머느리가 지 집을 나가 아들의 병간호며 손자 손녀를 돌보기까지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83세의 할머니입니다. 먼 길 교회에 가시면 휠체어 낄아갈 듯이 기쁘시다는 할머니는 겸손히 기도제목을 내 놓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가 예수님 믿고 머느리가 돌아오기만 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이 다 없어져 갈 곳이 없는 할머니 께 교회의 구제가 큰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 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고 계신 것, '사랑하라. 관용을 베풀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 하라'를 머리 속에 떠올리며 오로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과 찬송과 만나와 기 도제목을 들고 구역식구들이 모여 있는 그곳, 구역예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박현순 구역장)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애' 신도를 소개합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교회에 다닐 때는 열심히 못했습니다. 부 모님이 떨어져 그 후 혼자 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다 권 사님의 인도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 오면서 마음의 양식이 풍부해짐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하 는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알 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환영의 시간이 기억에 남고 즐거웠으며, 자상 하신 담임 선생님께서 감사드립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 양오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1교구 권인숙 권사(여78세)님께서 대퇴부 골절수술과 뇌수종으로 몸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중입니다. 병이 치유되어 심신 이 강건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3교구 김성경(여7세) 중이염으로 양쪽 귀를 수술했으나 왼쪽 귀의 수술결 과가 좋지 않아 재수술할 예정입니다. 몸이 약한 상태에 있으니 체력의 회복과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9교구 김성중(남27세) 청년1부 소속인 형제는 단기선교 중 발병한 말라 리아로 몸이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병의 치유와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 합니다.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프랜시스

아름다운 가난

"나를 자세히 보시오"라고 프랜시스는 가끔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의 초상화를 보 면 마치 그와 아직도 같은 말을 하는 느낌을 받는다. 자세히 보면 프랜시스의 모습은 초라하다. 아무렇게나 구겨진 수도복을 입고 말없이 서있다. 검은 눈에 긴 코, 좁은 이마, 주름 생기기 쉬운 입은 불분명한 수염 속에서 꼭 다문 채 있다. 손목은 말라서 닭 발처럼 앙상하다. '내가 되처럼 보입니까?'라며 그 자신도 자기 모습을 잘 아는 듯 으 으 말하곤 했다.

프랜시스, 그는 이탈리아의 아제제에서 1812년에 태어나 같은 장소에서 마흔 네 살 에 죽었다. 그의 아버지는 옷을 취급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프 랜시스 자신의 사업을 좀 확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본래부터 사업에 흥미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부에 도 별 취미가 없었다. 그의 관심은 야한 옷이나 입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었다. 그는 본래 노래를 잘했다. 그래서 평생 노래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입 은 노래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노래처럼 아름답게 조화된 것이 아니었 다. 그의 노래는 맑고 깨끗했지만 그의 가슴은 언제나 흐리고 답답할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프랜시스는 문둥이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난다.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 모두들 접근하기를 꺼리는 대상이었다. 프랜시스는 본능적으로 피해버렸다. 지나쳐서 가는 그의 마음은 수치로 가득했다. 다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병에 걸렸고 고 괴리한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문둥이에게 다가갔다. 우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 내어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 그의 누더기 위에다 입혔다. 그러나 그 것은 한낱 감상일 뿐이었다. 그것을 깨달은 프랜시스는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는 머 뚫어졌다. 그러다가 외곽 문둥이를 끌어안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또한 문 둥이도 더 이상 더럽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상한 경험이었다. 자기를 버릴 때 인 어지는 것일까? 그는 문둥이를 안았지만 그리스도를 안은 것처럼 느꼈다. 그리스도 께서 가르치신 형제 사랑의 원리를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다.

프랜시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날, 그는 모든 것 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러했다. 그는 변했 다. 그는 주님처럼 가난해지고 그 가난의 의미를 터득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화로 로운 옷을 걸치고 다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가난한 자들과 같이 되려고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대적인 빈곤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늙은 세상이 홀로 있는 고아의 심정으로 변하여 심령이 가난해진 것 이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그의 가난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에 굶주린 것이 아니 고 하나님께 굶주린 것이다. 하나님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난일까? (김기홍의 '천국의 기쁨' 예서)

다음주 일 전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가는 엘리자 해밀턴이 작시하고 D. 생키가 작곡한 것이다. 생키는 무디의 부흥 집회에서 영혼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어떤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녀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때 목사님은 이사가 53장을 읽어보라고 했다. 구원의 확신 하교에 다치지 못했으므로 성경도 읽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그 순간 성경의 강도를 받아 '오, 주님! 부족한 이대로 남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이 일화를 듣고 감명을 받은 생키는 그 소녀의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해밀턴의 시에 곡을 붙여 이 찬송가를 만들었다. '내 모습을 이대로 수 받으옵소서. 아멘'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주께 다 토로하는 마음으로 부끄럽고 은은하게 부르면 더욱 은혜로울 것이다. (천안위원회)

아빠는 가정의 본

송혜경 (원사, 영아부 교사)

"주여 구하옵나니,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시 138:12)

지난 주일 영아부에서는 아빠 초청찬가를 열었다. 잔치담금 얼마, 아빠, 아기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신령한 예배에 동참했다. 공과 공부 역시 "아빠 말씀을 잘 들었어요"란 제목이라 전도 사남 말씀부터 주 안에서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을 주었다. 이날 2부 순서에는 윤석민 집사님과 김홍기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맡아서 키우면서 어려웠던 일, 즐거웠던 일 속에서 감사했던 일을 은혜롭게 말씀해 주었다. 두 집사님께서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부터 읽기를 가르쳤고 가정예배를 꼭 드리는 자녀 교육방법을 택하셨다 한다. 성경읽기와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함을 다시금 느껴졌다.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인수를 해도 모든 일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칭찬을 많이 하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확대하지 말고, 자녀와 약속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지켜주고 또한 자녀와 성이 대화하는 아빠가 될 것을 권유하셨다. 또, 주일 성사를 꼭 하라고 가르치는 김 집사님과 국제에 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야간 열차를 자주 이용하셨다는 윤 집사님의 경험담도 들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기에 모든 말과 행동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중심 아래 가족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겠다. 우리의 자녀를 어떤 정치기 혼란 주제에 맞게 이 세대를 분반지 맡게 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록 늘 기도하며 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갖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힘을 깊이 알게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혜선 (유아부 교사)



내가 보기에 또 눈물이 뿜 돌 정도로 사랑스러운데, 주님 보시기엔 얼마나 더 이쁘고 사랑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이쁜 아이들을 매주 정발로 보고 싶어 하면 서도 많이 기도 하지 못하고 준비도 못한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설 때가 참 많다. 연약한 내 주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의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나를 더 닮아 주시고, 때론 지 않은 순순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으로 참 감사하다.

우리도 저 때론 지 않은 순순한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 가야겠구나 느끼면서 우리 유아부 모든 친구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길 소망한다.

유아부 선생님의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처음엔 말뚝말뚝 쳐다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얼마나 쏙스럽던지...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나를 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정말로 고맙고, 아이와 같은 나의 모습에 참 감사함을 느낀다. 예수님께서 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신 말씀,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아이들의 마음 속엔 정말 때론 지 않은 순순한 믿음이 있다. 엄마손을 붙잡고밖에 울 수 없는 아이들이지만, 참으로 착고 믿음 어린아이. 그것이 순수하게 주님만을 향한 것임에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유아부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그 순수함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주님 보시기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임을 느낀다. 우리가 저 어린 아이들을 볼 때면 모습이든지 사랑스럽고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기도 시간에 눈뜨고, 설교 시간에 편가를 먹어 아 하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선 아주 착한 어린 아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도탄한 감사한다. 유아부에서 느끼는 감사와 함께 매주 유아부 찬양대의 찬양에 참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지킴은 새들처럼, 지휘자 선생님을 보면서 그대를 그대여 감을 크게 불러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온다. 임팩트 안 하고 일어났다 앉는 애들도, 얼마만 처다보며 울상짓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모습도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Catechism

'개티키즘'이란

'개티키즘'이란 기독교의 교리를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념 주위에 얽매지 않고서 이 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초하여 문답식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개티키즘은 신앙으로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신도로서 함께 믿음을 갖는다. 이념 개티키즘을 통해 주님으로 교육형성이 더욱더 많은 체계적인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 성경에 관하여(1)

(1) 성경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친히 만물이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게 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나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제를 인식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한다.

계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그것인데, 먼저 일반계시는 한 마디로 천지만물이라고 할 수 있다. 롬 1:19-20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하였다. 인간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다가 자연히 하나님의 존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특별계시란 표적과 기사, 꿈과 환상,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음성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제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시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계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성경이 특별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일반계시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딤후 3:15).

다니엘(Daniel)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사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방에게 함을 전하는 '증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슬허하는 광경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읽지 않으면, 소위 어려움을 당고 말하고 비극을 소유하게 되겠다는 '성공 스토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지기의 영광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파하는데 있으며,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선교적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읽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선교적인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적용시키면서 읽으십시오. 다니엘이라면 여러분이 속한 환경에서 틀림없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들꺼니까요.

7장-12장을 읽을 때에는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목시적이고 '예언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을 명심해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쉽게 읽을 수 있을까요? 7장-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행하여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 '뜻'을 행하여 승리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역사가 '시대적 영웅'에 의해 진행되어 갔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에 의해 변함없이 실현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러한 시각으로 본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그에서 1장-6장에 나타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도 사실은 개인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일 뿐이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왜 하필이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가에 하는 것입니다. 1장-6장에 실려져서 증명되었듯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뜻을 정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이변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한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교통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하나님께 붙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씀처럼, 다니엘의 하나님께 정한 '정해진 마음' 곧 정결한 마음은 세상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가까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보물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음주에 계속)

(김동화 목사·출판국 지도)

